

# ‘김영란법 식사비 상향’ 외식업계 호재 작용할까

권익위, ‘3만→5만원’ 한도 조정  
2003년 이후 물가상승 반영 안돼  
음식점 등 매출 증대 기대 ‘환영’  
인상폭 맞춰 음식값 인상 우려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2일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확정했다. 식사비 한도 조정은 입법 사안이 아니기에 최대 4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르면 추석 전 시행될 수 있다. 이에 “식사비 3만원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라며 목소리를 높였던 외식업계 자영업자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23일 권익위 등에 따르면 올해로 시행 8년 차를 맞은 청탁금지법은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은

15만원), 경조사비 5만원(화환·조화 포함 시 10만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물가상승률과 경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 규제가 오히려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민생 활력을 저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외식업계는 고공행진하는 외식비용에 맞춰 식사비 한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다.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결정된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동일하게 3만원으로 결정돼 20여년간 물가 상승 등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한국소비자원 참가자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지역 기준 식당에서 후식으로 찾아 먹는 냉면 한그릇 가격은 9800원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연도인 2016년 6900원과 비교하면 42.03% 상승했다. 복날 흔히 찾는 삼계탕 가격은 지난달 기준 1만6400원으로, 2016년 1만4200원보다 15.49% 비싸졌으며 10년 전과 비교하

면 28.13% 증가했다.

이에 광주지역 외식업계 종사자들도 식사비 상향 조정 개정안을 반기고 있다.

광주 동구에서 일식당을 운영하는 전모(39)씨는 “식사비 인상은 자영업자들에게 분명 좋은 소식이다. 물가가 가파르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3만원에 맞춰 음식을 준비해야 하니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며 “하지만 공무원 등 외부 인사에게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 식당을 찾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반찬 가짓수를 줄이면 단골손님을 잃을 가능성이 있어 음식 퀄리티를 낮출 수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전씨는 “일반 손님들도 부담 없이 먹을 만한 가격을 책정해야 하므로 식사비 한도가 5만원으로 오른다고 해서 음식값을 인상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5만원으로 식사비 한도가 오르면 손님들이 합법적으로 더 비싼 코스를 주문할 수 있게 되는 등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매출 증대 효

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식당을 제외하면 식사비 인상은 자영업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41년째 정통일식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홍순학(65)씨는 “공무원 등 고위층이 많이 찾으면서 3만원 이상의 높은 가격대가 책정된 식당이 아닌 이상 식사비 인상이 일반 식당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며 “게다가 예전과 다르게 요즘은 공무원들이 접대받는 문화가 많이 사라졌다. 코로나 이후로 단체 모임 자체도 많이 사라져 손님 자체가 줄어든 것이 매출 감소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40여년째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문화가 바뀐 것은 처음이다. 고물가에 경기침체가 지속돼 사람들이 돈 자체를 쓰지 않는다. 의회 등이 근처에 자리한 시청이나 상무지구 인근은 식사비 상향 조정의 수혜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고 예

상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도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박성주(29)씨는 “일반 시민들도 밥 한 끼 사 먹는 데 기본 1만원에서 많으면 2~3만원까지 들어가는 상황이다. 물가 상승률을 등을 고려하면 5만원까지 올라가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모(61)씨는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수수 등을 막기 위해 개정된 법인 만큼 그 취지에 맞게 비용의 한계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해당 법안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데 식사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접대 비용을 더 늘리는 꼴”이라며 “아무리 물가가 올랐어도 식사 한끼에 3만원은 적은 가격이다. 식당들이 5만원 인상에 맞춰 음식값을 인상할 가능성도 있어 일반 시민들에게는 외식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



**롯데백, 휴가철 ‘먹거리 팝업’**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 1층 푸드에비뉴에서 25일까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간식거리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먹거리 팝업행사를 연다. 청주 만두 맛집으로 SNS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청주 미친만두’와 당도가 높은 초당옥수수 가루를 사용해 맛이 좋은 ‘초당 옥수수 호떡’, 광주 송정동의 명물 ‘송정리 1913 떡갈비’ 제품들을 선보인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 롯데마트 토이저러스, ‘플레이 데이’ 연다

여름방학 인기 완구 기획전  
8월14일까지 할인·팝업 진행

롯데마트 토이저러스가 여름 방학을 맞아 다양한 할인 행사 및 팝업 스토어로 즐거운 쇼핑 경험을 선사한다.

23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토이저러스 데이(7월 20일)를 기념해 전 세계 토이저러스가 7월부터 8월까지 동시에 진행하는 글로벌 이벤트 ‘PLAY DAY’에 동참, 오는 8월 14일까지 4주간 ‘토이저러스 플레이 데이’ 행사를 진행한다. 이에 행사 기간 동안 1000여종의 인기 완구 상품 할인 행사와 이벤트, 팝업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31일까지 진행되는 1차 행사에서는 ‘내가 갖고 싶은 완구’, ‘아빠도 갖고 싶은 키덜트 완구’, ‘가족과 같이 즐기는 완구’ 총 3가지 테마로 다채로운 상품들을 선보인다. ‘내가 갖고 싶은 완구’ 테마의 대표 상

품으로 핑크퐁, 포켓몬스터, 헬로카봇 등 인기 캐릭터 행사 상품을 최대 40%, 레고는 최대 50%, 주라기월드는 최대 70% 할인 판매한다. ‘아빠도 갖고 싶은 키덜트’ 테마의 경우 ‘PS5 디스크 슬림 본체’를 엘포인트 회원 대상 행사 카드 결제 시 6만원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인다.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야외 완구로는 승용 완구 ‘스쿠터라이드’ 카드 할인 행사와 함께 ‘모두의 마블’, ‘할리갈리’ 등 코리아보드 게임즈의 보드게임 전 상품을 2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이후 8월 1일부터 14일까지 더욱 풍성한 2차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5일부터 8월 7일까지는 휴가철에 수요가 높은 물놀이 용품 행사도 진행한다. 스노쿨링 마스크와 물총, 구명조끼 등 바캉스 필수 아이템을 최대 30% 할인판매하며, 롯데마트 토이저러스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디즈니 튜브 단독 상품은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가족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경품 이벤트도 준비했다. 31일까지 롯데마트 오프라인 전용 어플인 ‘롯데마트 GO’에서 이벤트 참여 시, 추첨을 통해 1등 PS5 슬림 디지털 버전(1명), 2등 스위치 라이트 블루(2명), 3등에게는 롯데모바일 5만원 상품권(10명)을 증정할 예정이다. 당첨자는 8월 8일 발표할 예정이다.

김경근 롯데마트 토이저러스팀장은 “‘토이저러스 플레이데이’ 행사를 통해 즐거운 여름방학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기 완구 할인 행사 및 다채로운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또한 전통적인 완구 유통에서 더 나아가 국내외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사와 협업을 앞으로 더욱 다양한 캐릭터 상품과 팝업 스토어를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다운 기자

## 삼성 비스포크 가전, 인간공학디자인상 수상

대한인간공학회 주관

삼성전자 비스포크 가전이 대한인간공학회가 주관하는 ‘2024년 인간공학디자인상(Ergonomic Design Award)’을 수상했다.

인간공학디자인상은 올해로 24번째를 맞은 국내 인간공학계 설계 분야의 최고 권위 상으로, △사용 용이성 △효율성 △가능성 △감성품질 △안정성 등을 소비자 관점에서 평가해 시상한다.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 냉장고와 울인원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가 ‘베스트 오브 베스트(Best of Best)’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물걸레 일체형 로봇청소기 ‘비스포크 AI 스티م’은 ‘특별상(Special)’을 수상했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수상한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는 식재료를 스마트하게 관리할 수 있는 ‘AI 비전 인사이트’ 기능이 탑재됐다.

AI 비전 인사이트는 냉장고에 넣고 빼

는 식재료를 자동으로 인식해 관리해 줄 뿐만 아니라 보관 중인 식재료를 기반으로 레시피를 추천해주고, 사용자가 보관 기한을 설정해두면 기한이 임박했을 때 알림을 줘 식재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울인원 세탁 건조기는 세탁물 이동 없이 세탁부터 건조까지 세탁기 한 대로 가능해 사용자의 시간과 노력을 줄여준다.

‘비스포크 AI 콤보’에 탑재된 ‘AI 홈’은 7형 터치스크린으로 누구나 쉽게 조작할 수 있으며, 화면을 음성으로 읽어주는 음성안내 기능이 탑재돼 접근성을 높였다.

‘특별상’을 수상한 물걸레 일체형 로봇청소기 ‘비스포크 AI 스티م’은 먼지 흡입부터 물걸레 청소까지 가능해 유용하고, △물걸레 자동 세척·스팀 살균·건조 △다양한 음성 안내 및 빅스비(Bixby) 기능 등으로 우수한 사용성을 인정받았다.

박소영 기자

## 한국은행 지역본부, 중기 한시특별자금 지원 연장

내년 7월까지 지원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이달말 종료 예정이었던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중소기업 한시 특별자금 지원 기한을 2025년 7월까지 1년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금융중개지

원대출 한도유보분을 활용해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4969억원 규모의 한시 특별자금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기존 지방중소기업 지원자금(4279억원)과는 별도의 추가 지원이다.

최근 취약·영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연체율 상승, 폐업 확대 등 경영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동 지원 조치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특별자금 지원기간(금융기관 대출취급 기준)을 내년 7월31일까지 연장하며 이 기간 내 취급된 1년 이내 만기 대출에 대해 한국은행은 2026년 8월31일까지 금융기관을 통해 저리로 지원한다.

아울러 오는 8월부터는 선별적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저신용 등급(6~10등급, 무등급, SOHO 포함)의 자영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문을 중심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최권범 기자

## 현대차, 인도네시아서 ‘EV 충전 얼라이언스’ 구축

현대자동차는 지난 19일(현지 시간) ‘가이킨도 인도네시아 국제 오토 쇼 2024’에서 인도네시아 민간 충전 사업자 6개 업체와 ‘현대 EV 충전 얼라이언스(연합체)’를 구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통해 현대차 전기차(EV) 고객은 ‘마이현대’ 앱으로 별도의 회원 가입, 결제 수단 등록 없이 얼라이언스에 소속된

타 업체의 충전 시설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하나의 앱으로 여러 업체의 충전 시설을 자유롭게 사용 및 결제할 수 있는 로밍 제도를 도입한 것은 현대차가 처음이다.

얼라이언스 구축에 참여한 7개 업체는 인도네시아에서 총 429개소 696기의 EV

충전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인도네시아 민간 EV 충전기의 약 97%를 차지한다.

이외에도 현대차는 EV 신차 고객에게 현대 EV 충전 얼라이언스 소속 업체의 충전소에서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충전량 50kWh를 매월 제공하는 ‘EV 충전 서비스 프로그램’을 출시한다.

EV 충전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제공된 충전량은 오는 8월부터 사용 가능하다.

박소영 기자